

존경하는 대주교님,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는 보스톤에 있는 성 십자가 신학교의 소성당 지성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스물 두 살이었고, 사목학 석사(M. Div.) 과정 신학생으로서 맞이한 첫 번째 주였습니다. 주교님은 신학 석사 논문을 마무리해가고 있던 수도대사제였습니다. 그후 24 년이 지난 오늘 만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 서울의 성 니콜라스 정교회 대성당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주교님의 복된 손을 통해 거룩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제가 보제로 서품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낮설고도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놀랍고도 거룩한 최고로 아름다운 선물로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내게 상기시켜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사 55:8)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제단을 돌아 그 앞에 무릎꿇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먼저, 그 경외감은 제 안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저는 제가 한없이 가치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저의 영적 상태는 신품 성사에 조금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편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시 24:3-4)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선고를 받아 비탄에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산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좋은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내 뒤로부터, 그리고 내 주위에서, 저는 제게 내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게서, 미국과 그리스에 계시는 제 조부모님, 부모님, 대부모님, 제 누이 에브리디끼, 제 고모님들, 삼촌들, 사촌들, 그리고 처식구들, 제 스승님들, 교수님들, 동료들, 우리의 결혼식 증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벗들에게서 받은 큰 사랑으로 인해 경외감을 느낍니다. 또한 15 년전 처음으로 저를 한국에 초청해주신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제게 용기를 주시고 한국 대교구에서 서품 받도록 축복해주신, 아메리카의 영적 아버지이신 디미트리오스 대주교님과 시카고의 야고보스 대주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름다운 문 앞에 서있는 저는 또한 이생의 삶을 마감하고 안식하신 가족들과 영적 조연자들, 특별히 소프로니 샤카로프 수도사님, 바실리오스 쉬가노스 수도사님, 빠나요따의 어머니 요르기아, 제 사촌 디미트리, 그리고 제 어머니 폴헤리아의 현존과 기도를 강하게 느낍니다.

제 아내 빠나요따, 우리 자녀, 미카엘과 지아, 매일 그대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끊임없는 신현현이고, 끊임없이 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준 살아있는 거룩한 이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서품성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나와 함께 이 직무를 공유할 그대들 셋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과 그대들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멀리서 와주신 분들, 여기 한국에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나는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용서와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새로운 방식의 봉사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많은 실수들을 참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그 어떤 능력이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보다 여기 한국에 계신 여러분 신자들에게 바칠 것임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제 가족과 나는 이 거룩한 대교구의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일하게 됨을,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공동된 추구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섬기고 투쟁할 수 있게 됨을, 너무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두려운 역할과 책임을 생각할 때, 저는 대 안토니오스 성인의 말씀을 마음 속에 되새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얻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금언집. 안토니오스 9) 이렇게 제 자신의 구원은 여러분 각자의 구원과 뿔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과 겸손과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 앞에 계신 대주교님을 보니, 저는 다시 한번 경외감에 압도됩니다. 저는 영적 아버지이신 대주교님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교님은 저와 빠나요파에게 결혼성사를 베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크게 기뻐할 때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주셨고,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대주교님은 분별력있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해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주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적 가족 안에 영접해주셨고, 우리를 한국과 세계 곳곳에 있는 영감 넘치는 정교회 공동체들과 연결시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대주교님을 계속해서 조명해주시고 오래도록 몸과 영혼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제 위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 하느님의 경외로움이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안과 밖 모두를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합니다. 제단 앞에 이끌려 갈 때, 저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무가치한 저를 멸하시지나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과 정교회는,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제직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대주교님, 우리의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거룩한 손을 통하여 저를 보제로 받아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신성한 은총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